



보도 일시	2022. 10. 21.(금) 11:00	배포 일시	2021. 10. 21.(금) 09:00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책임자	과장 곽소희 (044-215-8750)
		담당자	사무관 전종현 (jj2276@korea.kr)
			사무관 이현지 (hjlee8300@korea.kr)

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 최초로 국내 기관이 주도한 GCF 사업 승인

- 제34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가 '22.10.15(토) ~ 10.20(목)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개요 >

- ◇ **설립목적:**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
- ◇ **설립년도:** '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
→ '13년 한국 인천시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
- ◇ **재원:** (초기재원) 103억불 (1차 재원보충) 100억불
* 우리나라는 총 3억불 공여
- ◇ **이사회 구성:** 선진국·개도국 각각 이사 12명, 대리이사 12명 (총 48명)
- (이사회 개최) 1년에 3~4회 개최, 현재 공동의장은 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 금번 이사회에서는 국내 GCF 인증기구인 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비롯해 총 9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대해 GCF 자금 5.5억불 지원을 승인하는 한편,
-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사회인 만큼 GCF의 2022년 운영성과와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2023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승인하였다.

[산업은행의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승인]

- 특히 금번 GCF 이사회에서는 산업은행이 제안한 사업이 최종 승인되어 최초로 국내 GCF 인증기구*가 주도하여 추진한 사업이 GCF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 GCF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 받은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 수행·관리
'22.10월 기준 GCF 인증기구는 총 113개이며, 그 중 국내 인증기구는 산업은행·KOICA 2개

- 동 사업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산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사회의 승인 결정으로 동 사업에 GCF 자금 총 1.05억불이 투입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기관이 약 1.3억불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하여 총 사업 규모는 약 2.5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산업은행 사업의 승인은 ①국내 기업·기관의 개도국 기후 사업 참여, ②GCF 보증의 효율적 활용, ③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 ① 먼저, 동 사업에는 인증기구인 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계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참여하여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예정으로,

- 이는 앞으로 국내 기업·기관의 개도국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또한, 동 사업은 보증이라는 GCF의 혁신적인 금융 수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시장의 리스크를 경감하고, 민간 재원을 유인한다.

- 이는 기후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재원 동원에 주목하는 최근 GCF의 전략* 및 국제 개발협력 추세에도 부합한다.

* 민간 부문 전략(Private Sector Strategy)('22.5월 제32차 GCF 이사회 승인)

- ③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금융 지원 이외에도 금융기관,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제공하여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업은행 사업 외에도 프랑스개발청(AFD), 독일국제협력공사(GIZ) 등이 제안한 8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승인됨으로써 총 35개 개도국에 GCF 자금 5.5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209건, GCF 지원액은 약 114억불로 확대된다.

[2023년 GCF 업무계획 승인]

- 아울러, 이사회는 2022년 GCF의 업무성과와 이행내역을 점검하고, 운용 우선순위, 신규 사업·인증기구 승인 목표 등 2023년 GCF 사무국과 독립 기구의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 2023년에 GCF는 개도국 GCF 인증기구의 사업 참여 촉진, 민간 부문 전략 활용, 군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국 지원 확대, GCF 자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우선순위 목표로 운용하는 한편,
- 올해 7월에 절차가 개시된 2차 재원보충(2024-2027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4~2027년 전략적 계획 업데이트와 사무국의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의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사회 발언을 통해 코로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GCF 사무국의 지원과 노력 덕분에 올해 총 4번의 이사회 개최, 19건의 사업 승인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 2023년에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GCF 자금에 대한 개도국의 직접 접근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개도국 GCF 인증기구에 대한 역량 강화, 개도국 인증기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대한 검토 확대 등을 당부하였다.

[향후 계획]

-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차기 GCF 이사회는 '23.3.13(월)~16(목),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 고

제34차 GCF 이사회 승인 사업

사업명	인증기구	국가	분류	GCF 요청액(백만불)
인도네시아 산업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그램	KDB산업은행	인도네시아	감축 민간	105.0 (보증, 무상공여)
바누아투 물안보 강화를 통한 적응 및 복원력 향상	태평양공동체 (SPC)	바누아투	적응 공공	23.3 (무상공여)
바베이도스 폐수 처리 시스템의 기후 복원력 향상	카리브해공동체 기후변화센터 (CCCCC)	바베이도스	교차 공공	39.4 (무상공여)
페루 아마존 지역 산림 비즈니스 지원 사업	페루환경보호기금 (Profonanpe)	페루	감축 공공	9.0 (무상공여)
건물 냉각 장치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사업	프랑스개발청 (AFD)	알바니아 등 11개국	교차 공공	220.5 (선순위대출, 무상공여)
E-모빌리티 등 저탄소 교통수단 친화적 환경 조성	중남미개발은행 (CAF)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감축 공공	76.6 (차관, 무상공여)
녹색 채권에 대한 보증 기관 설립 지원	미쓰비시UFG은행 (MUFGBank)	가봉 등 8개국	교차 민간	40.5 (지분투자)
라틴아메리카-서아프리카 기후 벤처 금융 지원	독일국제협력공사 (GIZ)	베냉 등 13개국	감축 민간	26.9 (무상공여)
기니비사우 북서 해안 지역 농업 생산 시스템 적응 지원	사하라-사헬 관측소 (OSS)	기니비사우	적응 공공	9.8 (무상공여)
지원요청 총액(백만불)				551.0